

강기(姜夔) 정사(情詞)의 意識流 연구

左維剛*

- I. 들어가는 말
- II. 강기 정사의 의식 흐름
 - 1. 내면세계의 독백
 - 2. 자유연상
 - 3. 시간과 공간의 몽타주
- III. 강기 정사의 의식 흐름 근원 탐구
 - 1. 불우한 성장 과정
 - 2. 소년 시기의 情事
 - 3. 인류의 집단 무의식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意識流(의식 흐름)이라는 개념은 1884년에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James William)가 미국 『MIND』 잡지에서 발표한 논문 『論內省心理學所忽視的几个問題』에서 처음 기재하였다. 이 논문은 훗날 1890년에 출판한 심리학 전문 저서『심리학의 원리 The Principles of Psychology』에 수록되었다. 문장에서 ‘의식은 조각으로 나누어져 표현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체인’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혹은 '계열'이라는 용어로 의식 본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다. 의식 속에는 연결시킬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은 흐르기 때문에 '江'이나 '흐르는 물'에 비유해서 나타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자연스럽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사상류', '의식류', '주관적 생명의 흐름'이라고 부른다¹⁾. 제임스의 이론에 따르면 첫째, 개인의 생각은 개인의식의 일부이며 의식은 개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셋째, 의식의 변화는 연속적이며,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의식 대상은 복잡할지라도 언제나 완전한 형태이다. 다섯째, 의식은 의식 흐름 중 각 부분은 선택,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즉, 제임스는 사람의 의식은 연관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를 "사상 흐름, 의식 흐름 혹은 주관 생활의 흐름"이라 한다. 의식 흐름은 하나의 학술 개념 혹은 이론 장르로서 서양에서 처음 생겨났다. 하지만 한 가지 심리학 범위, 현상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은 없다고 했다. 시공을 막론하고 인간 마음의 질서는 확실히 같은 것이다. 錢鍾書는 '동해 서해, 마음은 같도다. 남쪽과 북쪽의 학문적 도술은 갈라지지 않았다(東海西海, 心里攸同; 南學北學, 道術未裂)'고 하였다.²⁾ 이렇게 보면 의식 흐름 문학은 실제로 사람의 비논리적, 비감성적, 시간을 초월한 무의식적인 정신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식 흐름은 인간 의식의 자연적인 흐름과 그것의 표현이다. 시와 사 속에서 더 쉽게 나타난다. 서술보다는 시와 사의 특징 즉, 감정의 표현인 '情'의 실질적 의미와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의식 흐름'이 더 큰 동질성을 보인다. 의식 흐름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서술보다 작가가 더욱 쉽게 내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작가의 재능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시인과 사인들은 항상 사람의

1) James William(美)著, 田平譯, 『心理學原理』, 中國城市出版社, 2003, 150쪽.

2) 錢鍾書, 『談藝錄』, 中華書局, 1984, 1쪽.

감정이나 내면세계의 탐구를 자신의 창작의 중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에 대한 복잡함과 미묘함을 깨달고 중요시 하는 과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창작활동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시인과 사인 자신들은 종종 의식 흐름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심리학적 시각에서 보면, 의식의 흐름은 詩와 詞 등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의 생명과 영혼인 것이다.

의식 흐름을 한 연구 수법으로서 소설 연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 기존 연구 분야의 폭을 넓히려고 이 수법으로 시와 희극도 연구해 보고 많은 학술적 성과를 얻었다. 사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의식흐름은 한 가지 창작수법으로 일찍 중국 고전 詩詞 중에 이미 많이 나타나 있다. 『시경』으로부터 시작해 漢樂府, 漢魏六朝詩, 唐詩 등에 모두 이러한 의식 흐름 작품이 있다. 그런데 의식 흐름의 이론으로서 고전 詞를 연구하는 논문이 아직도 없는 것 같다. 비록 소설, 시와 詞는 많이 다르지만 중국 문화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모두 다 사상, 정서 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에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 한다면 사람의 심리상황을 강조하는 의식 흐름 이론을 통해 고전 詞 연구의 새로운 창을 열 수 있지 않을까?

詞로 말하자면 먼저 宋詞의 변천을 볼 필요가 있다. 詞는 唐末과 五代부터 많은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었지만 北宋 중엽이래로 詞라는 것은 줄곧 본연의 색을 바꾸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南宋에 이르러서 姜夔(1155~1221)은 蘇軾과 辛棄疾의 뒤를 이어 문단에 선 후 그는 온 마음을 다해 詞에 대한 규칙을 총괄하였고, 詞의 본연의 특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詞의 작품성을 올려놓았고, 柳永의 詞의 본연의 색과 周邦彥의 詞의 전형적 아름다움을 계승하였다. 이것은 장차 宋詞 창작에 있어 새로운 고도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詞의 작품들이 후대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陳廷焯은 “강기의 詞를 보면□□南宋의 위대한 詞작가라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吳文英, 張炎 등 詞人들은 쉽게 따라갈 수 없다(姜堯章詞, 南宋一大家也, 夢窗玉田諸人未易接武)”고 높은 평가를 하였다.³⁾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고 사랑과 관련된 詞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작품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들이 잘 녹아 있다. 夏承焘 선생은 唐宋시대의 사랑과 관련된 詞 중 가장 특출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⁴⁾ 일생 동안 지은 작품은 80여 편이며, 주제에 따라 나누면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흐름과 인생을 기록한다. 이런 작품은 14~15편이 있다. 예를 들면 〈揚州慢〉등. 둘째는 기행문, 만담이 13~14편이 있고 전자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點絳脣〉, 〈鷓鴣天〉, 후자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石湖仙〉, 〈驀山溪〉가 있다. 셋째는 사물을 노래하는 작품은 대략 20~30편 정도로 이 중에서 매화를 노래한 작품이 약 17편 정도로 가장 많다. 넷째는 懷人詞로 20편이 있고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여기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懷人詞는 바로 정사이다. 夏承焘의 『白石詞編箋校』와 『唐宋詞人年譜·姜白石系年』의 부록인 『白石懷人詞考』 참고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20편으로 淳熙 13년에 지은 작품으로 〈一萼紅〉, 〈霓裳中序第〉, 〈小重山令〉, 〈浣沙溪(著酒)〉, 〈探春慢〉가 있고, 淳熙 14년에 지은 작품으로는 〈踏莎行〉, 〈杏花天影〉이 있으며, 淳熙 16년에 지은 작품은 〈琵琶仙〉이 있다. 그리고 紹熙 2년에 지은 작품으로 〈浣沙溪(釵燕)〉, 〈淺黃柳〉, 〈長亭怨慢〉, 〈醉吟商小品〉, 〈秋宵吟〉, 〈點絳脣〉, 〈解連環〉 등이 있고, 紹熙 4년에 지은 작품으로는 〈玲瓏四犯〉이 있다. 그리고 寧宗慶元 2년에 지은 작품으로는 〈紅梅引〉이 있으며, 寧宗慶元 2년에 지은 작품으로 〈鷓鴣天(肥水)〉, 〈鷓

3) 夏承焘, 『姜白石詞編年箋校·合肥詞事』, 『南宋詞史』,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290-291쪽.

4) 夏承焘, 『姜白石詞編年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1, 269쪽.

鳩天(盤路)》, 〈月下笛〉가 있다. 姜夔의 정사(情詞)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양은 많지 않지만 일정한 성과가 있다. 周建梅의 『論晏幾道、吳文英、姜夔的情詞三部曲』에서 詞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宋代情詞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세 분을 각각 소개하였다. 이것은 정사 연구에 아주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詞 작가의 공통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하였지만, 강기(姜夔) 정사(情詞)에 대한 연구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반면 許芳紅의 『取長補短, 各造其詣——從姜夔愛情詩詞之比較解讀詩詞互滲』은 강기(姜夔)의 사랑 詩와 사(詞)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예술성 및 예술표현상의 융합성을 소개하였다. 세명대학교 황영희 교수님의 『姜白石詞悲劇色彩的美感』은 강기(姜夔)의 정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에 강기가 드러내고 있는 비극적 색채에 대한 서술이 중점적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강기(姜夔)의 정사를 대상으로 확정하고 깊이 있게 사에 내포된 사(詞)작가의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못하였다.

강기(姜夔)의 사(詞)를 보면, 그들은 모두 인간의 이런 마음 속 깊은 곳 정신세계의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의식 활동을 표현한다. 그는 외부 세계의 묘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연상, 내면세계의 독백 등 기교를 광범위하게 차용해 사람의 의식 활동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었다. 본문에서 姜夔의 정사(情詞)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의식의 흐름의 각도에서 본다면, 姜夔의 정사(詞)에서 정에 대한 의식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사랑에 관련된 詞를 통하여 애정에 대한 의식의 흐름의 근원을 찾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이로써 중국 고전 詞의 기존 연구 방법을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강기의 정사 연구 가운데 의식 흐름에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기에 필자는 이런 시각으로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 강기의 정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강기 정사의 의식 흐름

1. 내면세계의 독백

전통 소설 속 내면세계의 독백은 작가가 서술하지 않고, 인물의 심리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 père)는 내면세계의 독백을 ‘사상 혹은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 속 사유를 직접적으로 이용해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⁵⁾ 전통 소설 속 내면독백의 본질은 일종의 이성적이며 논리에 부합하는 의식 활동이었다. 意識流 소설에서의 ‘내면세계의 독백’은 의식이 어떠한 한 영역을 재실현할 수 있으며, 비이성적이고 논리에 부합하는 것과 비이성적이며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비이성적이면서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기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기의 정사(情詞) 속 내면세계의 독백은 〈一萼紅〉에서 그 해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옛 성터에 녹음 이룬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매화, 붉은 꽃 아직한 머리 꽃기 이르다네. 연못 위의 얼음은 미끈거리고 담장 밑의 흰 눈은 녹아 가는데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었네. 등나무 길가에 한가롭고 웃음소리 애기 소리 잠든 새를 깨우네. 깊은 숲속 썩가의 시골 늙은이들 정왕대 옛 정자에 소리쳐 함께 올라 내려다보네.

무슨 일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했는가? 흘러가는 구름과 강물을 아득히 바라보니 가슴이 아파오네. 붉은 문엔 닭 그림, 금 쟁반엔 제비 요리, 좋은 시절 다 간다고 부질없이 탄식하고 그 옛날 우리 함께 서쪽 누각에 모였다. 버들은 아직도 황금실을 날리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아마도 봄이 깊어 때가 늦겠지

(古城陰，有官梅幾許，紅萼未宜簪。池面冰膠，牆腰雪老，云意還又沉

5) 趙樂生, 『中國現代派文學詞典』, 吉林文史出版社, 1990, 308쪽.

沉翠藤共間穿徑竹，漸笑語驚起臥沙禽。野老林泉，故王臺榭，呼喚登臨。
南去北來何事？蕩湘云楚水，目極傷心。朱戶黏雞，金盤簇燕，空嘆時
序侵尋。記會共西樓雅集，想垂楊還裊萬絲金，待得歸鞍到時，只怕春深)

下関의 “記會共西樓雅集” 구절은 아회(雅集)의 즐거움을 회상하고 있다. “想垂楊還裊萬絲金” 구절 역시 그 당시 버드나무 가에서의 “送君南浦”를 회상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을 말하고 있다. “待得歸鞍到時”은 먼 훗날 연인과 만나는 날을 동경하며 회상하고 있으며, “只怕春深” 구절에서 ‘春’은 실제로 자연의 변화인 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세월에 따라 점점 늙어 변하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네 구절은 詞인 강기가 언덕에 올라 기쁨이 다하고 슬픔이 찾아 왔을 때의 내면세계의 독백인 것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가 서로 서루(西樓)에서 아집(雅集)했던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하지만 그대와 버드나무 가에서 헤어질 때는 또 얼마나 슬프고 애달픈가(언제쯤 그대와 재회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내가 그대를 찾아가는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대와 나의 모습은 젊음이 사라져 변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는 강기가 아집을 회상하며 느끼는 기쁨과 이별할 때 슬픔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데, 이별의 아픔을 알기에 만남을 동경하고(당연히 이러한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만남은 돌아옴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오는 것이다. 기쁨, 슬픔, 걱정에 대한 감정의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한 내면의 독백에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2. 자유 연상

자유연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감각의 연상, 다른 하나는 환각의 연상이다. 전자는 현재의 강렬한 경험이 일찍이 경험한 어떤 것을

회상하게 하는 것이다. 강기의 〈杏花天影〉을 예로 들어보자.

〈杏花天影〉에서 “푸른 버들가지 낮게 드리운 원앙 물가 도엽은 당시 여기서 뱃사공을 불렀으리라(綠絲低拂鴛鴦浦, 想桃葉, 當時喚渡) 라고 했다. 이 사의 서(序)에서는 “丙午년 겨울, 면구를 출발하여 다음 해 丁未년 정월 2년 금릉을 지나는데, 북쪽으로 회남 일대를 바라보니 풍광이 맑고 아름다워, 작은 배에 돛을 달고 한가로이 물결에 맡겨 놀았다(丙午之冬, 發沔口. 丁未正月二日, 道金陵, 北望淮楚, 風月清淑, 小舟掛席, 容與波上)”라고 하였다. 우리는 눈앞의 풍경을 보고 느끼는 어떤 한 감정을 가지고 이 두 구절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시각인 의식 흐름을 통해 감각연상의 시각으로 이 두 구절을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의 고전 詩와 詞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흔히 ‘류(柳)’의 정서를 취하는데 ‘류(柳)’는 곧 류(留)인 것이다. ‘류(柳)’는 옛 문인들에게는 이별의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버드나무를 보면 이별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르는데, 이것은 감정상의 조건 반사와 비슷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조건반사’이기는 하지만, 천성적으로 사랑에 깊게 빠지고 예민한 성격의 강기의 내면은 광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감각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도엽환도(桃葉喚渡)’의 풍경을 떠올리게 되어 지난날 이별의 아픔과 같은 정서에 급격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이어서 “나 또한 봄바람 속에 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떠나려다가 뱃전에 기대어 잠시 머무노라”(又將愁眼與春風, 待去. 倚欄, 更少駐) 라는 구절을 보자. 이 구절은 앞의 두 구절을 보충 설명하는데 이것을 감정의 연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예를 들어 보면, 〈江梅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별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매화가 떨어져 바라보는데 문득
그녀 그렇다. 몇 번인가 조그만 창 아래 달콤한 꿈속에서 손을 잡곤

했지. 오늘 밤 꿈속에서 그녀 찾을 길 없어. 이리저리 배회하는데 이불 속 차가운 향기 느껴 어렴풋이 잠 깨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다.

한 땀한 편지, 눈물 젖어 알아보기 어렵고 보배처럼 아끼던 쟁 한편에 버려져 기러기발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유별나게 즐기던 그 거리 부질없이 고목과 비스듬히 걸린 석양만이 남았구나. 땀놀이 하자던 지난 약속 꼭 지키려던 생각 이미 물거품 되어버렸네. 봄풀 무성할 때 회남으로 돌아가겠다던 시구 지난날 노래했거늘 정처 없는 나그네 눈물로 옷깃만 가득 적신다.

(人間離別易多時, 見梅枝, 忽相思, 幾度小窗, 幽夢手同攜, 今夜夢中無覓處, 漫徘徊, 寒侵被, 尙未知,

濕紅恨墨淺封題, 寶箏空, 無雁飛, 俊遊巷陌, 算空有, 古木斜暉, 舊約扁舟, 心事已成非, 歌罷淮南春草賦, 又萋萋, 漂零客, 淚滿衣.)

“人間離別易多時” 이 한 구절이 시 전체를 총괄한다. 사 전체의 시각으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幾度小窗, 幽夢手同攜”라는 구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꿈속의 기쁨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꿈속의 기쁨은 얼마나 짧은지, 강기는 금방 꿈속 기쁨의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온다. “今夜夢中無覓處” 라는 구절을 보면, 꿈 속 기쁨이 현실에서 혼자 고독과 적막을 다시 연상되게 하는데, 기쁨에서 슬픔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漫徘徊” 세 글자는 강기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내면의 그리움과 고통을 모두 이 세 글자에 함축한 것이다. “寒侵被, 尙未知”라는 내용을 보면 매화가 피는 계절은 겨울과 봄이 만나는 시기로 추위가 매우 심하다. 추운 날씨에도 강기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에 빠져있기에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종합해 보면 강기는 매화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고, 사랑하는 이로 인해 만남의 기쁨을 떠올리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꿈속의 기쁨이 현실 속 혼자라는 고독과 적막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연상의 고리가 서로 뻑뻑하게 엉켜있다.

자유연상의 두 번째 종류는 환각연상이다. 환각연상의 주요 특징은 작가가 환상의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린다. 환각연상은 시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고 논리적 질서에 어긋난다. 이 사를 예로 들어보자.

詞 〈解連環〉에서 水驛燈昏, 又見在曲屏近底. 念唯有夜來皓月, 照伊自睡라고 했다. 그리움이 지나치게 심각하고 환각이 돼 버린다. 자나 깨나 그리운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는 것 같다.〈踏莎行〉시에서 “그녀의 낮은 남몰래 멀리 나를 찾아왔다가 회남의 흰 달빛이 수많은 산을 차갑게 비추는데, 어두컴컴한 밤에 홀로 돌아가누나(離魂暗逐郎行遠. 淮南皓月冷千山, 冥冥歸去無人管).” 라고 했는데, 환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 사람은 당 전기 『離魂記』의 이야기를 이용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역시 영혼이 빠져 나와 천리 길을 마다 앓고 찾아와 만나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 만남 이후에는 다시 ‘冥冥歸去無人管’이 두려워진다. 신비로운 상상은 사 전체에서 매우 깊은 낭만주의적 색채를 느끼게 한다.

3. 시간과 공간의 몽타주

자연 공간 중 시간은 세 가지 단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며 이 세 단계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意識流 문학 중 동일 공간엔 세 가지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 시간 내 다른 공간을 용납하고, 다른 공간에서 자유로이 변환할 수 있다. 아래 강기의 정사를 결합하여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한다.

우선 강기의 정사 중 공간 의식의 전환을 살펴보자. 〈踏莎行〉을 예로 들어 보자.

날렵한 제비인 듯 깜찍한 피꼬리인 듯 분명히 꿈속에서 다시 보았

다. 무정한 사람이야 이 마음 어찌 알랴? 이른 봄에 벌써 그리움에 물 들었다

헤어진 뒤 그녀가 보낸 편지와 헤어질 때 그녀가 지어 준 옷은 그대로 있건만 그녀의 낮은 남몰래 멀리 나를 찾아왔다가 회남의 흰 달 빛이 수많은 산을 차갑게 비추는데 어두컴컴한 밤에 홀로 돌아가누나.

(A. 燕燕輕盈, 鶯鶯嬌軟, B. 分明又向華胥見, C. 夜長爭得薄情知, 春初早被相思染, D. 別后書辭, 別時針線, E. 離魂暗逐郎行遠, F. 淮南皓月冷千山, 冥冥歸去無人管)

詞序에서 “면주에서 동쪽에서 오는 길에 정미년 정월 초하루에 금릉에 이르러 강가에서 꿈을 꾸고 짓다(自沔東來, 丁未元日至金陵, 江上感夢而作)”라고 한다. 이 詞도 記夢詞이다. “燕燕輕盈, 鶯鶯嬌軟”이라는 말이 이야기하듯 이것은合肥에서 만난 연인의 모습이다. “分明又向華胥見”는 꿈에서 깨어 후회하는 말인 듯하다. 심리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분석해 보니 詞人은 이것은 단지 꿈임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夜長爭得薄情知, 春初早被相思染”라는 두 구절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다. 만약 A, B구절 중의 의식 주체는 주인공 자기 자신이라면 C구절은 抒情 주체가 마음속에 두고 있던 연인으로 전환된다. “(저 같은 약한 여자에게) 밤이 너무 긴데, 정이 얇은 낭군은 어찌 이것을 알까? 봄이 곧 오니 내 마음에 온통 그대 생각뿐이구나!” 원문의 뜻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문구인데,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고 사인은 이런 필법으로 의식을 유동하고 있다. A, B구절은 공간 의식과 抒情的 주체가 본인인데 C구절은 공간 의식과 서정 주체를 이동시켜 머나먼 곳에 있는 연인에게 돌렸다. 下闋에서 사구의 공간의식이 여러 번 전환 된 것을 쉽게 보아 낼 수 있다. “離魂暗逐郎行遠”에는 사랑하는 여인은 꿈을 통해서 먼 곳에서 찾아온다고 사인은 상상한다. ‘여기에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구에서 묘사한 비슷한 장면을 머릿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 구에서는 淮南皓月冷千

山, 冥冥歸去無人管이라고 얘기 한다. 사랑하는 여인이 꿈을 통해서 영혼을 떠나 걸으면서 느끼는 고독감을 사인은 상상한다. 여기 공간의식은 또 자기로부터 연인에게 바뀐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의 공간 의식을 많이 바꾸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구절은 꿈, B는 꿈에 대한 반성, C는 꿈을 대신 꾸는 것, E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먼 곳에서 찾아 온 것, F구절은 E를 이어 환상이 계속 되는 것이다. 꿈의 끝에 연인이 고독하게 떠나는 것을 걱정하고 자신이 혼자 외롭게 있게 된 것을 가엽게 생각하고 있다. 공간 의식이 자신으로부터 연인으로, 연인으로부터 자신으로 연인과 자신 사이에 반복된다.

〈鷓鴣天〉의 上闕는 강기의 정사 중 시간의식의 흐름을 제일 잘 말해주는 구절이다.

동으로 흐르는 비수는 다할 때가 없으니, 상사의 씨 애당초 안 보아야 했었네. 꿈속이라 단청보다 또렷하지 못했는데 어둠 속에 문득 나는 새소리에 놀라 깬네.

봄빛은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고 살짝머리에는 먼저 하얀 실이 걸렸는데 헤어짐이 오래되어 슬픔이 마비됐네. 그 누가 해마다 대보름 밤에 멀리서 소리 없이 생각나게 하는가?

(A. 肥水東流無盡期, B. 當初不合種相思, C. 夢中未比丹青見, 暗里忽驚山鳥啼 D. 春未綠, 鬢先絲, E. 人間別久不成悲, F. 誰教歲歲紅蓮夜, 兩處沉吟各自知)

夏承燾의 『姜白石詞編年箋校』에서 “강기의 懷人詞 중 이 사는 시간과 장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때 강기는 마흔 살이고 합비에서 처음에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20년쯤 넘었다(白石懷人詞, 此首時地最顯. 時白石四十歲, 距合肥初遇, 已二十余年矣)라는 구절은 얘기하는 듯이⁶⁾ 20년쯤 전에 강기는 합비(合肥)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 20년

6) 夏承燾, 『姜白石詞編年箋校長』, 上海古籍出版社, 1981, 69쪽.

후에 같은 곳에 찾아가서 감회가 깊어서 이사를 지었다. A구는 “肥水東流無盡期”라고 한다. 이 구는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앞의 “肥水東流”의 장면을 쓰는 것이 아니지만, 작가 마음속에 숨겨 있는 고통이 감춰 있다. 20년쯤 전에 바로 여기서 합비 여인을 만나고 친해졌는데 20년쯤 후에 작가 혼자만 舊地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람과 사물이 다 변화했는데 단지 이 하수는 20년쯤 전에 흐르던 것처럼 똑같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B구 “當初不合種相思”를 보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앞의 “肥水東流”의 장면을 보고 작가는 옛날 사랑의 추억에 빠져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추억으로부터 꿈으로 전환된다. “夢中未比丹青見, 暗里忽驚山鳥”라는 구절에서 꿈에서 연인의 모습은 그림보다 그다지 생생하지 않다. D구 “春未綠, 鬢先絲”는 사인은 꿈에서 벗어나고 봄이 지나간 것과 사람이 늙어 지는 것도 늘 슬프게 여긴다. 이런 감정이 바로 이 시간에 느끼는 정서이다. E구는 또 현재로부터 “紅蓮夜”에게 전환되고 이 사람과 연인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서 상대방을 그리워하지만 볼 수 없어서 생기는 슬픔을 상상하는 것이다. 위의 문자 분석을 통해서 사인이 앞의 장면을 떠나고 과거의 추억에 빠지다가 추억에서 벗어나고 또 다시 꿈에 진입하는 심리적 전환을 볼 수 있다. 下蹶에서 꿈으로부터 벗어나고 빨리 흘러간 세월과 없어지는 젊음을 한탄하면서 기억 속의 수많은 추억에서 서로 다른 지방에 있어서 만날 수 없어서 마음 속 깊이 새겨 둔 고통을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시간은 무질서하고 비논리적인 형태로 “當前”(현재) - “當初”(과거) - “夢中”(꿈) - “歲歲”(과거)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

이어서 〈琵琶仙〉을 보자.

노를 저어 다가올 때 배 위의 여인은 옛날 사랑했던 그녀와 닮았네.
여인은 부채로 날리는 꽃잎을 가볍게 받는데 그 용모 정말 곱고 사랑

스러워라. 봄은 점점 멀어져 가고 정주는 푸르는데 게다가 두견이 울음소리 들리네. 십리 길 양주의 아름다웠던 일들 나는 마치 삼생이 모두 두 목인 듯 지난 일들은 말하지 않으려네.

궁중에서 불을 나누어주는 한식이 되었으니 수심 속에 계절이 어느덧 총총히 바뀌었구나. 가슴속 가득한 연정을 모두 빈 섬돌에 떨어지는 느릅나무 꼬투리에게 내주었구나. 버드실가지는 무성해져 까마귀가 숨을 만하고 벼들 꽃은 눈송이처럼 옥 술잔을 맴돌며 춤추네. 예전에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며 그녀와 이별하던 정경이 보이는 듯 하여라.

(雙槩來時, 有人似, 舊曲桃根桃葉, 歌扇輕約飛花, 蛾眉正奇絕. 春漸遠, 汀洲自綠, 更添了, 幾聲啼鳩, 十裡揚州, 三生杜牧, 前事休說.

又還是, 宮燭分煙, 奈愁里, 忽忽換時節. 都把一襟芳思, 與空階榆英, 千萬縷, 藏鴨細柳, 爲玉尊, 起舞回雪. 想見西出陽關, 故人初別.)

“雙槩來時, 有人似”는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가까이 배를 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의 장면인데 자세히 보고 나서 “舊曲桃根桃葉”라는 말이 얘기하듯이 이 사람이 내가 합비에서 만나던 연인 같다. 생각이 바로 앞의 장면으로부터 과거의 연인에게 가고 시간의식도 현재로부터 과거로 전환한다. “春漸遠, 汀洲自綠, 更添了, 幾聲啼鳩”라는 구절에서 “春”는 배를 타는 여자로 비유한다. 여기서 배를 타고 온 사람이 또 배를 타고 가 버리고 점점 떠나는 장면이다. 시간도 다시 현재에 찾아온다. 그런데 “十裡揚州, 三生杜牧, 前事休說”라는 구절에서 감탄하면서 前事를 생각하고 과거에 당겨 간다. 위의 분석을 보면, 上闕에서 나타나는 시간은 今-夕-今-夕의 식으로 흘러가고 심리적인 시간은 금석 사이에 자연스럽게 왕복한다.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이론에 따르면 심리시간이란 인간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각 시간에 시간 서열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한 순간에 지난 긴 세월을 되찾아볼 수도 있고 먼 미래도 동경할 수 있고 현재 과거와 미래는 서로 하나로 되는 모습으로 동시에 머릿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⁷⁾ 이 말은 우리가 강기의 정사 중에 시간 의식의 변환을 이해하

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어서〈解連環〉을 예로 들어 보자.

손에는 채찍을 들었으나 도저히 말에 탈 수가 없네. 이별의 서러움이 다시 한 번 떠오른다. 합비(合肥) 연인자매 때문이다. 大喬의 비파, 小喬의 쟁에서 흘러나오는 우아한 음악. 유연한 몸매 그리고 부드러운 머릿결, 아름답기 그지없다. 어디 치장이 필요하겠느냐? 여인이 말한다. 전 아직도 처음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커튼을 통해 보였던 당신의 부채든 모습.

창밖에 바람이 많이 차가워지고 밤비도 이미 그쳤구나.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별이로구나.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느냐는 당신의 물음에 난 장미를 가리 킬뿐. 아름다운 당신 이었던건만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 강변 역참, 황혼 속 한잔의 불빛이 마치 당신의 처소로 다시 돌아간 듯하네. 하나하나의 병풍 옆에서 밤마다 고통에 앓는 당신이 생각난다. 회남(淮南)의 차가운 달빛에 비취 외롭게 잠드는 당신의 모습.

(A. 玉鞭重倚, 卻沉吟未山, 又縈離思. B. 爲大喬能拔春風, 小喬移妙箏, 雁啼秋水. C. 柳怯云松, 更何必, 十分梳洗. D. 道郎攜羽扇, 那日隔巒, 半面曾記. E. 西窗夜涼雨霽, F. 嘆幽歡未足, 何事輕棄. G. 問后約, 空指薔薇, 算如此溪山甚時重至. H. 水驛燈昏, 又見在, 曲屏近底. J. 念唯有, 夜來皓月, 照伊自睡.)

이 詞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시공 교착에 있다 A구는 현재의 실재적인 풍경을 묘사한다. 마편을 들고 막 말을 채찍 하는 순간에 이별의 아쉬움도 떠올린다. B, C, D 구는 모두 추억하는 장면이다. 왜 오랫동안 떠나고 싶지 않을까? 합비의 연인 大喬와 小喬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B구는 연인의 才를 얘기하고 C구는 연인의 色을 얘기하고 D구는 연인의 情을 얘기한다. 이 세 구는 다 과거에 대한 추억을 얘기한다. 下闕에서 E구는

7) 蔣承勇, 『20世紀歐美文學史』, 武漢大學出版社, 2007, 325쪽.

이별 전날의 장면을 묘사하고 F구는 다시昔에서 今에게 전환되고, 지금의 이별을 한탄한다. G구는 다시 추억에 빠져 버린다. 아직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돌아오겠냐고 묻는다. “空指薔薇”라는 구절에서 이 여자는 자기의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고 말이 아닌 순수한 동작으로 자기의 처정을 쑥스럽게 전한다. “甚時重至”라는 구절에서 과거·미래의 시간의 식으로 헤어질 때 여자가 언제 올 거냐고 물었다는 것을 추억한다. 그런데 “水驛燈昏”을 보면,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 “又見在、曲屏近底”에서 연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을 상상한다. 여기 “又”자를 보면 강기가 정사 때문에 환상을 많이 해 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감정이 얼마나 깊은 지 알 수 있다. 마지막 구절인 “念唯有、夜來皓月，照伊自睡”에서 사인은 헤어진 후에 달빛이 자고 있는 연인을 비추는 것을 상상한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사인은 이 순간의 현실에서 추억으로 돌입하고 이별 전 장면에서 현재의 헤어짐으로 전환한다. 이어서 현재의 이별로부터 다시 어제 연인하고 이별할 때의 장면으로 전환되었다가 현재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장면을 상상한다. 시간의 흐름은 今-昔-昔--今-昔-今-未來의 식으로 자유적인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하던 심리시간이라 볼 수 있다.

Ⅲ. 강기 정사의 의식 흐름 근원 탐구

의식 흐름은 심리 범주, 심리 현상으로 또는 문학창작의 한 수법으로 중국 고전적인 시와 예 시인에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흔히 쓰였다. 北宋과 南宋의 詞人들은 백석 정사의 의식 흐름 특징이 유달리 두드러졌다. 원인이 뭔지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불우한 성장 과정

夏承燾선생의 『唐宋詞人年譜 姜白石系年』에 의하면, 紹興 30년(1160년)에 강기는 다섯 살 때 아버지가 進士가 되었다. 孝宗隆興元年(1163년)에, 아버지는 漢陽에 관리로 일하러 간다. 강기는 원래 鄱陽사람인데, 이때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이사한다. 그런데 이런 안정된 생활은 5년 밖에 유지 되지 못했다. 乾道四年(1168년)에 여동생은 漢川에 시집가고 아버지는 임기 내에 죽는다. 심리학의 시각으로 보면 청소년 시기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데 그때 나이도 어린데 강기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은, 성년의 강기가 왜 굳세고 강하지 않고 연약한 성격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별세한 후에 강기는 여동생을 의지하고 산다. 그러나 오래 되지 않아 여동생을 떠나 방랑한 인생을 시작한다. 夏承燾선생의 『唐宋詞人年譜 姜白石系年』에 의하면 강기는 湖州에서 蕭德藻에 기대어 지냈다. 10년 후에는 范成大를 의지한다. 그 후에 寧宗慶元三年(1197년)에 杭州로 이사하고 張鑾과 張鉷 등 친구를 의지하고 산다. 장감이 죽은 후, 강기는 너무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浙東 嘉興과 金陵 사이를 오고가며 살았다. 강기는 평생 동안 공명을 못 얻고 가난하게 남에게 얹혀 살았고, 마음속에는 늘 방랑하는 느낌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생긴 무소속감이 아주 강했다. 이런 감정은 아래와 같은 사에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영락해 떠도나니 지금 무슨 흥이 있어 술청 옆에 누워 있
으랴? (飄零久, 而今何意, 醉臥酒壚側) (《霓裳中序第一》)

봄풀 무성할 때 회남으로 돌아가겠다던 시구 지난날 노래했거늘 정
처 없는 나그네 눈물로 옷깃만 가득 적신다.

(歌罷淮南春草賦, 又萋萋, 飄零客, 淚滿衣) (《江梅引》)

방초가 무성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꿈 못 이루고 해가 저물면

배를 옮겨 또다시 어디로 갈까?

(滿庭芳草不成規, 日暮, 更易舟, 向甚處?) (〈杏花天影〉)

오랜 세월 밖에서 떠다니는 결과 돌아 온건 말 못할 슬픔뿐이라는 걸 누가 알겠느냐?

(誰念飄零久, 漫贏得幽懷難寫。) (〈探春慢〉).

강기의 정서 중 가장 많이 나오는 意象은 “떠남-돌아옴”이다. 그의 많은 정사를 보면 강기가 늘 여행하는 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詞에서 볼 수 있다.

그녀의 님은 남몰래 멀리 나를 찾아왔다가.

(離魂暗逐郎行遠) (〈踏莎行〉)

피리 소리 속에 관산을 지났고 버드나무 늘어진 거리를 찾기도 했다네. 붉은 꽃 떨어져 소식이 없고.

(笛里關山, 柳下陌坊, 墜紅無消息) (〈霓賞中序第一〉)

늘 강남의 아름다움이 생각나곤 한다. 난 언제쯤이야 다시 돌아 갈 수 있을까? 오솔길에 자라난 풀들이여.

(江南好, 甚時重到, 陌上青青草。) (〈點絳脣〉)

헤질 무렵, 까마귀들은 수양버들 속에서 울고 있다. 나그네가 탄 말은 점점 사라져 가고 나의 꿈도 함께 가져갔다네

(細柳暗, 黃千縷, 暮鴉啼處, 暮鴉啼處, 夢逐金鞍去。) (〈醉吟商小品〉)

내가 떠나간들 그녀가 당부한 말을 어찌 잊으랴?

(韋郎去也, 怎忘得, 玉環吩咐) (〈長亭怨慢〉)

낭당생활에 싫증나니 탄식도 적고, 아래위를 돌아보며 고금을 슬퍼한다

(倦遊歡意少, 俯仰悲古今) (〈玲瓏四犯〉)

말 위 홀웃 입은 몸은 으스스하게 춥구나

(馬上單衣寒惻惻) (〈淡黃柳〉)

언제쯤 다시 돌아 올수 있을까? 아, 아름다운 매화는 초봄의 밤에 활짝 피어가네

(甚時歸來, 梅花凌亂春夜) (〈探春慢〉).

손에는 채찍을 들었으나 도저히 말에 탈 수가 없네. 이별의 서러
 움이 다시 한 번 떠오른다
 (玉鞭重倚, 卻沉吟未上, 又縈離思)(〈解連環〉)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이 강기가 여기 저기 방랑하고 남들에게 얹혀사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때문에 강기가 너무 일찍이 세태의 야박함과 인정의 후함과 박함을 느껴 마음 상태가 예민해지고 감정도 풍부해진다. 이것을 제외하고 여행과 생활하는 곳을 자주 바꾸는 것이 강기의 시공의식을 더 강하게 했고 사고방식도 늘 沔鄂, 淮南(合肥), 金陵, 揚州, 蘇州, 杭州 등 도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다. 간단히 얘기하면, 불쌍한 성장과정 때문에 강기의 내면세계가 유난히 예민하고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2. 소년 시기의 情事

夏承燾선생의 『白石懷人詞考』에 의하면,合肥에서의 만남은 백석 23살 때에서 32살 때 그 사이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이에 그는 합비에서 두 여인을 사귀게 되었는데 〈昔遊〉라는 시에서 이르기를 “自矜意氣勢豪, 敢騎雪中馬”라고 하였으니 바로 소년시기 江淮에서의 일을 다룬 것이다. 합비에서의 만남에 관하여 하승도선생은 두 여인이었다고 하였다. 바로 “燕燕輕盈, 鶯鶯嬌軟”(〈踏莎行〉)에서의 “燕燕”과 “鶯鶯”, “爲大喬能拔春風, 小喬移妙箏”(〈解連環〉)에서의 “大喬”와 “小喬”, “有人似, 舊曲桃根桃葉”(〈琵琶仙〉)에서의 “桃根桃葉”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두 여인의 신분에 관하여 하승도선생은 “似是勾欄中人”이라고 하였는데,⁸⁾ 〈鷓鴣天〉에서의 “三生杜牧”, 〈霓裳中序〉에서의 “醉臥酒壚側”, 그리고 〈琵琶仙〉에

8) 夏承燾, 『唐宋詞人年譜 姜白石系年』, 上海古籍出版社, 1979, 450쪽.

서의 “有人似, 舊曲桃根桃葉” 등을 그 증거로 들었다. 비록 두 여인의 신분은 비천하지만 우리는 백석의 詞에서 그가 무엇 때문에 함비의 두 여인에 대하여 그토록 낮이 나갈 정도로 잊을 수 없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그들이 “色”적 미를 지닌 것이다. <踏莎行>에서 다루기를 “燕燕輕盈, 鶯鶯嬌軟”라고 하였다. 그 중 “輕盈”, “嬌軟”은 두 여인의 자태에 대한 아름다움을 충분히 잘 다룬 묘사이다. 그리고 <琵琶仙>에 다루어진 “格扇輕扇約飛花, 娥眉正奇絕”중 앞 구절은 연인의 춤의 자태에 대한 묘사이고, 뒷 구절은 특별히 클로즈업 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才”를 지닌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여인들이 비파와 쟁을 능숙하게 다루는 등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解連環>에 나오기를 “爲大喬能拔春風, 小喬移妙箏”라 하였고 <醉吟商小品>에서는 “芳心休訴說, 琵琶解語”라 하였으며, <江梅引>에서는 “寶箏空, 無雁飛”라고 하였다. 그리고 <浣溪沙>에서는 “恨入四弦人欲老”라고 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여인들이 지닌 “情”인데 이것이야말로 백석이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踏莎行>에 있는 “別后書詞, 別是針線” 중의 바늘 실에서 여인의 눈물을 볼 수 있었고, “離魂暗逐郎行遠”이 구절은 비록 상상하여 지은 사이기는 하지만 또한 그 여인의 정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鷓鴣天>에서는 “誰教歲歲紅蓮夜, 兩處沉吟各自知”라 하였고, <月下笛>에서는 “春衣都是柔荑剪, 尙沾惹殘茸半縷”라 하였으며, <秋宵吟>에서는 “衛娘何在, 宋玉歸來, 兩地暗縈繞”라고 하였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解連環>의 “問后約, 空指薔薇, 算如此溪山, 甚時重至?”이다.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시간을 물으니 소리 없이 흐느끼며, “空指薔薇”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강기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강기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굶어서 남에게 었혀살았으며 고독하고 적적하게 떠돌이 생활도 하였었다. 게다가 운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이룩

하지 못했으니, 그 마음은 더없이 외로웠고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가 궁지에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함비에서 만난 여인은 그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강기는 “幽事”에 대하여 평생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낮이 나갈 정도였다. 특히 그가 情詞에는 꿈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았는데 꿈속에서 여인을 만났던 정경을 잊을 수 없어 사로 적어 그 감정을 토로하였다. 예를 들면 〈小重山令〉에서의 “花可可，夢依依”，〈江梅引〉에서의 “分明又向華胥見”，〈鷓鴣天〉 중의 “夢中未必丹青見”，〈浣沙溪〉 중의 “尋夢千驛意難通” 등등이 있다.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 심리상태의 활동이라 하였고 사상이 꿈속에서 비주얼 그래픽으로 변환되는 즉 잠재된 꿈이라 하였는데…드라마틱해진…꿈은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도이고, 또한 일정한 상황에서 아주 완벽하지 않은 형식으로 소원을 실현시키며, 심지어 때로는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고 하였다⁹⁾, 이 말은 백석기몽사의 가장 적합한 주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꿈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에서도 이런 감정은 과도처럼 밀려와 억제할 수 없었다. 〈一萼紅詞序〉 중의 “상강 위의 구름은 피어올랐다 스러지고 상강의 물결은 유유히 흐르니, 흥이 다하고 슬픔이 밀려와 술에 취해 읊조리며 이 곡을 지었다(湘云低昂，湘波容與，興盡悲來，醉吟成調)”라는 구절은 높은 곳을 올라오니 연인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의미였고, 또한 〈探春慢詞序〉에서 말하기를 “歲晚乘濤雪兒下，顧念依依，殆不能去”라 하였다. 여기서 “顧念依依”는 가슴 속에 쌓여 있는 저자의 감정을 표출시켜 표현한 것이며,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감정인지도 충분히 나타냈다. 〈杏花天影 詞序〉 중 “정미년 정월 2일 금릉을 지나는데, 북쪽으로 회남 일대를 바라본다(丁未正月而日，道金陵，北望淮楚)”에서의 “淮”는 “淮南”

9) 프로이트著, 許季鴻譯, 『精神分析論的新導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363-368쪽.

바로 그 연인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며, 즉 경유하는 도중에 연인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琵琶仙 詞序〉 중의 “나는 소시보와 술을 싣고 성 남쪽에서 놀다가 감흥이 일어 이 사를 짓는다.(予于蕭時父載灑南郭, 感遇成歌)”는 차에 술을 실으면서도 감회가 깊었다는 것이고, 〈玲瓏四犯 詞序〉 중의 “越中歲暮, 聞蕭鼓感懷”는 강기의 연인에) 대한 감정이 하도 깊어서 보름날 밤에도(〈鷓鴣天 元夕有所夢〉), 노 젓는 여인을 볼 때도(〈琵琶仙〉), 매화를 볼 때(〈江梅引〉)나 버드나무를 볼 때도(〈杏花天影〉) 모두 떠올려진다는 뜻이다.

즉 다시 말하면 지나간 일들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기만 하면 강기는 예전의 여인을 생각하게 되며, 또 그런 그리움이 너무나도 커서 냇이 나가고 환각이 생길 정도였는데 “水驛燈昏, 又近在曲屏近底。”(〈解連環〉)라 표현하였다. 역대 이래 평론가들은 강기의 詞 중에서 懷人詞가 가장 훌륭한 詞라 인정하였다. 그 주요 원인은 강기가 정을 다름에 있어서 아주 열광적이고 또한 냇이 나갈 정도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기의 정사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우리는 그가 현실 속에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나간 달콤한 생활의 추억 속에 도취되어 살아갔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정사를 읽을 때마다 정서의 파동이 하도 커서 기쁨, 고통, 근심, 희망 등 여러 가지 감정이 서로 엇갈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필자는 강기에게 있어서 합비에서의 만남은 매우 인상이 깊어 그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3. 인류의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정신분석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Carl G. Jung가 인류사회가 원시사회로부터 각 세대가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경험의 쌓여 온 것을 제시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도 아니라 태어났을 때 갖게 되는 것이다”¹⁰⁾ 서양 사람과 중국 사람들은 사랑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해 왔다. 서양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강한 정서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그 감정을 토로하는데 중국의 시인들은 늘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안 보이는 곳에 모시고, 먼 거리를 두고 멀리서 상상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걱정은 그리움이 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침음으로 돼 버렸다. 단지 아득하고 긴 길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뒷모습과 긴 세월 중의 담박한 정서만이 남아 있다. 이 정서를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 예로부터 이뤄진 중화민족의 집단 무의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意識流는 한 문학의 필법으로 『시경』으로부터 시작해 漢樂府, 漢魏六朝詩, 唐詩, 宋詞 등에서 抒情 문학의 집단 무의식이 이루어진다. 강기의 많은 詞를 읽어 보면 곳곳에 열렬하고 대담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윽하며 우여곡절 있게 깊은 감정을 털어놓는다. 詞에서 취하는 필법은 바로 이 의식 흐름이다. 강기는 그 당시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역사와 민족의 흐름 속에 숨겨 있는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그의 수많은 사는 의식 흐름을 자유스럽게 나타냈다.

IV. 나오는 말

중국문학은 일찍이 삼천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녔다. 각 시대 작가들이 창작한 시사곡부(詩詞曲賦)는 헤아릴 수 없다. 나는 더욱 宋代의 詞 문학의 감정세계에 빠져 들었다.宋代는 詞의 황금시기로, 위로는 제왕 아래로는 기녀까지 詞의 묘사 대상이 되었다. 그때 문학의 추세도 시가에서 詞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중에는 연인이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하

10) 朱立元, 『當代西方文藝理論』,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5, 167쪽.

는 많은 작품이 오랜 걸작으로 나타났다. 이 詞는 마치 눈이 부시도록 뛰어났다. 오랜 세월동안 독자에게 많은 공감을 샀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강기는 평생 관직에 오르지 않았고 예술 작품에 전념하며 부단히 추구해왔으며 그 당시 문학 발전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강기가 속한 시대의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온화하고 우아한 선비로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불행한 성장 과정은 그의 내면에 풍부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소년 시절과 인생 말년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헤어 나오지 못했다. 그는 소중히 여기는 개인의 인품을 문학 작품에서 찾아 즐겼다. 매우 복잡한 갈등의 감정은 강기의 붓 아래서 우아한 연인의 감정으로 변모하였다. 詞人 강기의 무한한 마음속의 독백과 시공을 초월한 상상은 중국의 애정 집단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토로했다. 이것은 그의 사랑 노래가 역사의 한 줄기에 영원한 영향을 끼쳤음을 뜻한다.

〈中文摘要〉

姜夔情詞的意識流研究

左維剛

中國文學已有三千多年的悠久歷史,各代文人們創作的詩詞曲賦舉不勝舉,而筆者更鍾情於宋代詞體文學的情感世界。宋朝是詞的黃金時代,上至帝王將相,下至樂官妓女,莫不能詞。它不斷擴展的內容,和逐步豐富的技巧,使得詞以其獨有的魅力,迎合並推動了整個中國古典文學發展的趨勢,詞作的繁榮並成爲一個時代的特徵。愛情是始於《詩經》的一個美麗不朽的話題,宋詞自然也出現了諸多描寫戀人和愛妻深摯思念而成爲的千古佳作。無論是柳永還是蘇軾,還是辛棄疾,還是姜夔,他們的詞,特別是情詞,有如一首首不絕千年的戀歌,悠揚,哀婉,敘說著人類最普遍的情愛。這些詞獨特的俊秀之美,使得它們千載之後仍使讀者產生強烈的共鳴。就姜夔而言,他終身未仕,憑著對藝術的遮著追求和不懈努力,終於登上了當時文學發展的頂峰,開創了一個屬於姜夔的時代。他是耿介清高的雅士,一生清貧自守,成長的不幸又造就了他內心世界的極度敏感豐富,而少年情事的不幸,又使得他終生都沉浸在感情的漩渦之中不可自拔。然而,他清高而又珍視個人人品,以文藝創作自娛。糾葛的情感是複雜的,在姜夔的筆下,這種感情是化俗爲雅的戀人情節。詞人姜夔在無盡的內心獨白和無限的空間想像中,也延續著中國抒情文學中情愛的集體無意識。這也使得他的情愛之歌在歷史的長河中化爲永恆。因此,本文從意識流的相關理論出發,結合姜夔情詞的具體作品,分析了他情詞中的內心獨白、自由聯想以及蒙太奇等意識流的運用,並討論了造成姜夔情詞意識流特點的根源,認爲原因有三:一是不幸的成長過程,二是少年情事的迷戀,三是收民族集體無意識的影響。

關鍵詞: 姜夔 情詞 意識流 蒙太奇 集體無意識

〈참고문헌〉

- 夏承燾, 『唐宋詞人年譜』, 上海古籍出版社, 1979.
- 姜夔著, 夏承燾, 『姜白石詞編年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1.
- 钱鍾书, 『談藝錄(補訂本)』, 中華書局, 1984.
- 柳鳴九, 『意識流: 西方文藝思潮論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 프로이트 著, 許季鴻譯, 『精神分析論的新導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 趙樂生, 『中國現代派文學詞典』, 吉林文史出版社 1990.
- 沈家莊, 『宋詞三百首今析新註』, 瀋江出版社, 1996.
- 陶爾夫, 胡俊林, 楊燕, 『姜張詞傳』, 吉林人民出版社, 1999.
- James William(美)著, 田平譯, 『心理學原理』, 中國城市出版社, 2003.
- 郭伯勛, 『宋詞三百首詳析』, 北京, 中華書局, 2005.
- 朱立元, 『當代西方文藝理論』, 武漢: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5.
- 金德煥譯, 『白石詞의 예술적 가치』, 문영사, 2006.
- 蔣承勇, 『20世紀歐美文學史』,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7.
- 이태형譯, 『우리말로 읽는 송사 300사』, 한국학술정보, 2009.
- 朱祖謀譯, 『이동향 역주 송사삼백수』, 문학과지성사, 2011.